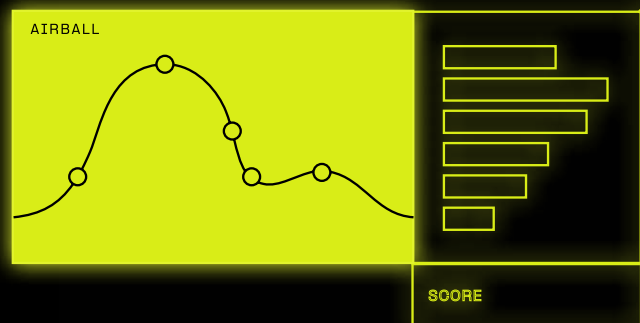


중요 정보: LSPORTS 분 기별 데이터 보고서 - 2025년 2분기





CEO 인사말

스포츠 베팅은 전 세계 시장에서의 신문 1면을 장식할 만한 인수합병과 대대적인 규제 변화에 힘입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시기에 **2025년 2분기** 데이터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데이터 수요가 전년 대비 2분기 연속으로 성장한 흐름과 함께, 새로운 성장 스토리 속에서도 입지를 굳건히 지킨 기존 선두 주자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또한, 개선된 메이저 축구 대회 포맷이 불러온 주목할 만한 변화와, 가장 인기 있는 테니스 이벤트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순위 변동 역시 주요 시사점으로 제시됩니다.

이번 분기 호에서는 여러 신규 분석 도구, 특히 그 중에서도 리그의 실질 인기를 밝히기 위해 고안된 경기 소비 지수(FCI)를 소개합니다. LSports는 이렇게 추가된 도구들이 당사의 지속적인 시장 인사이트와 결합되어 스포츠 북 업계에 떠오르는 수요와 이에 대한 최선의 대처 방법에 대한 더 분명하고 정확한 전망을 제공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Dotan Lazar
CEO, LSports



경기 소비 지수(FCI)를 소개합니다

이번 호의 분기별 데이터 보고서에서는 스포츠북 업체 사이에서 리그 또는 스포츠에 대한 실질 수요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을 제공하는 새로운 지표를 출시합니다. FCI는 더 정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가공되지 않은 고객 데이터와 경기량을 비교하여 다양한 규모의 대회를 통한 전체 수요를 표준화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FCI는 당사 파트너가 특정 리그의 경기를 주문한 평균 횟수를 보여줍니다.

모든 리그 수준 비교와 순위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FCI 산출값에 기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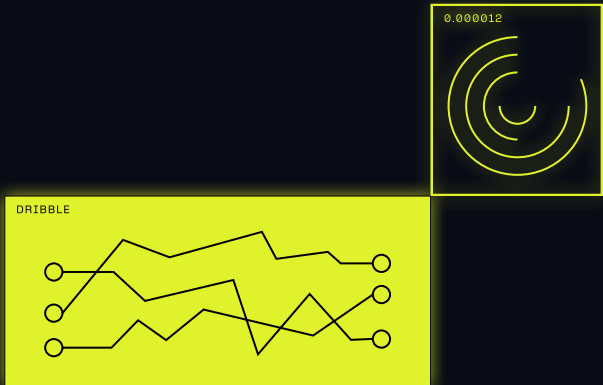
설명

- 이 보고서는 2025년 2분기 스포츠 데이터 소비량의 동향을 분석합니다.
- 모든 '전년 대비'는 2024년 2분기와 2025년 2분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반올림된 퍼센트와 수치를 표기했습니다.



이어지는 모멘텀: 한 분기 더 성장한 스포츠 베팅

1분기보다 성장세는 더뎠지만, 스포츠 베팅 업계는 2분기 연속 대규모 수요 성장을 기록했고 전년 대비 데이터 소비량은 **19%** 증가했습니다. 축구와 탁구, e스포츠가 다시 한 번 전체 수요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동시에 농구의 수요가 이번 분기에 대폭 늘어나 성장률 기준으로 축구를 제치고 2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최대 19% 증가한 스포츠 데이터 수요

전체 수요 기준 인기 스포츠 성장률 기준 인기 스포츠

1	 축구	1	 E스포츠	52%
2	 탁구	2	 농구	42%
3	 E스포츠	3	 축구	25%
4	 농구	4	 아이스 하키	22%
5	 테니스	5	 배구	20%
6	 아이스 하키	6	 탁구	13%



NBA 선두, 유럽 축구 강세, 신흥 강자 아시아

리그 수준 분석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극적인 플레이오프 결승전이 큰 화제를 모은 NBA가 여전히 1위를 지켰습니다. 그 뒤를 잇는 것은 UEFA Champions League를 선두로 한 유럽의 주요 축구 대회들로, 글로벌 스포츠 베팅 시장에서 유럽 축구가 여전히 견고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아시아에서는 구단별 및 국가별 대회 세 곳이 순위권에 진입하며, 아시아 지역에서의 글로벌 스포츠 베팅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평균 경기당 주문량 기준 상위 리그



신규 대회 포맷이 축구에 미친 여파

스포츠 베팅의 1인자인 축구는 소비량 **25%** 증가
를 보이며 한 분기 더 성장했고, 최초로 주문된 경기
55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리그 | 전년 대비 순위 변화 (경기당 평균 주문량)

UEFA Champions League	+3 ↑
UEFA Europa League	+5 ↑
Serie A	-2 ↓
Premier League	-2 ↓
Bundesliga	= →
LaLiga	-3 ↓
Ligue 1	-1 ↓
UEFA Conference League	+4 ↑
Eredivisie	= →
AFC Champions League Elite	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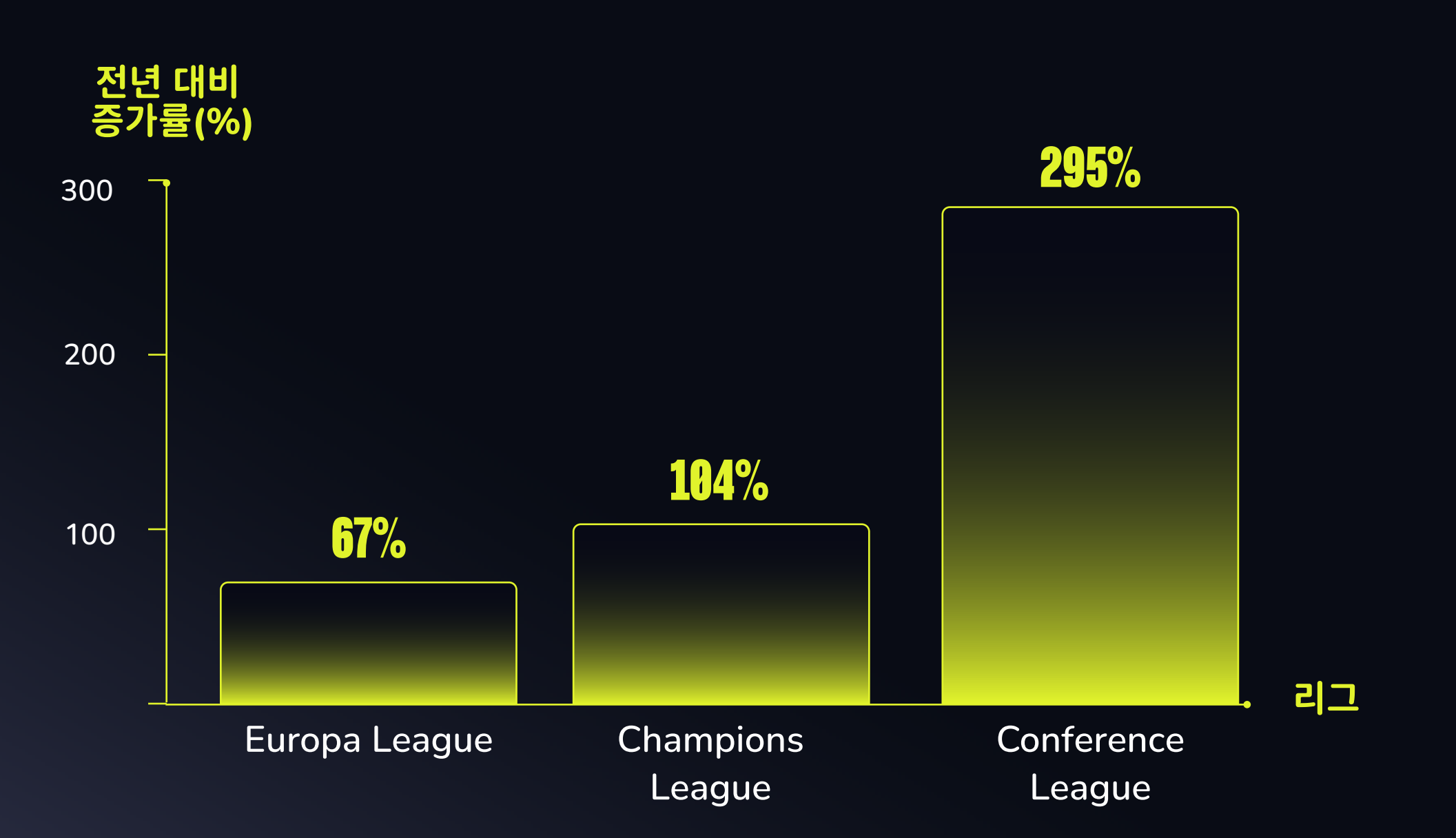
철저한 검사를 받았음에도 6월부터 시작된 FIFA Club World Cup의 확장 포맷은 스포츠북을 향한 분명한 수요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각 경기는 평균 **100**건 이상 더 주문되었고 토너먼트는 가장 수요가 많은 대회 상위 **20**위 안에 들었습니다.

FIFA Club World Cup의 소비량은 **미국**에서 전년 대비 **66%** 증가했는데, 이는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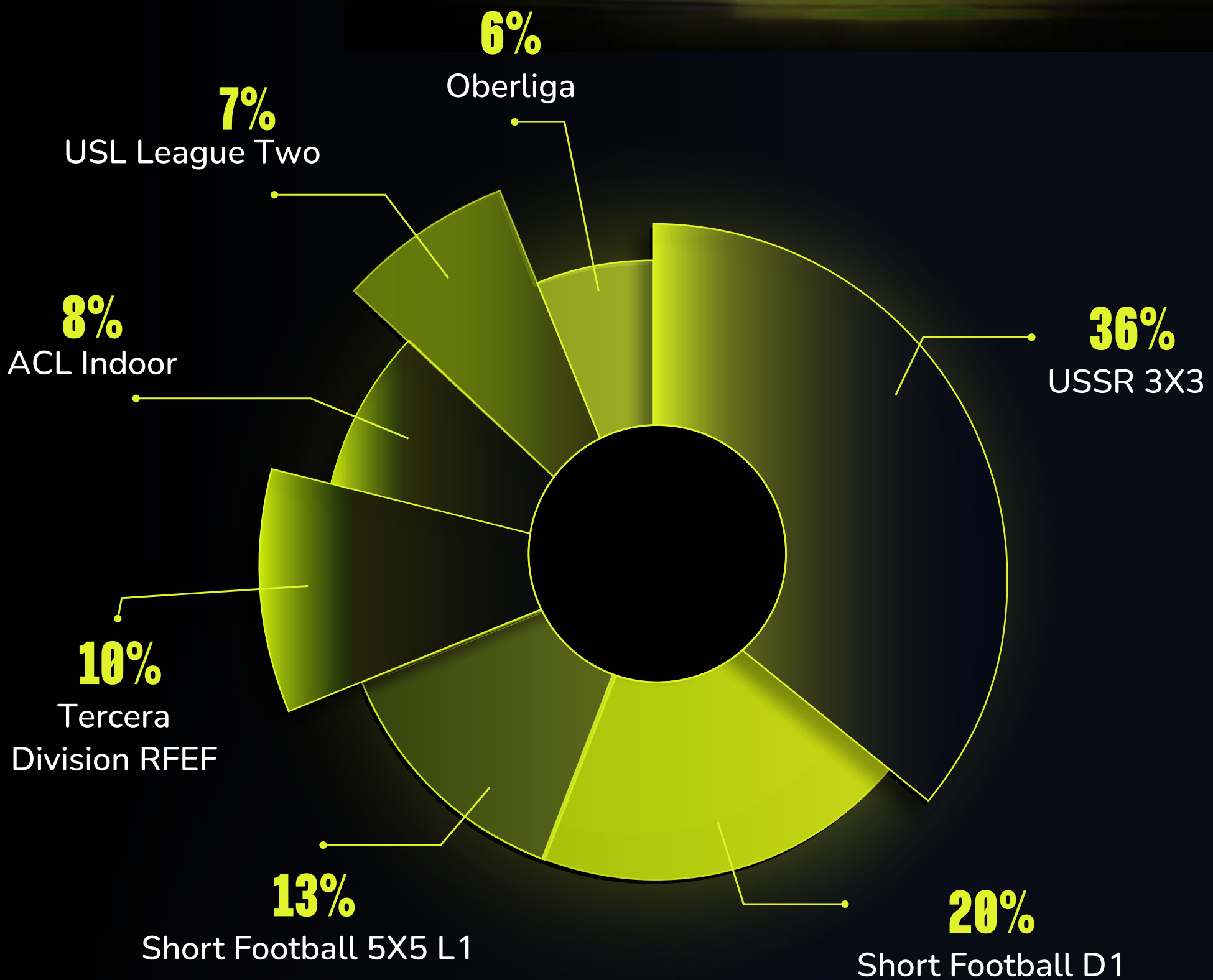


축구 전반의 25% 성장률은 상당 부분 주력 유럽 구단 대회 덕분이었습니다. 새로운 포맷에 힘입어 Champions League, Europa League, Conference League는 전년 대비 총합 **155%**에 달하는 현저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 1분기에 확인된 것처럼 축구 틈새 시장은 여전히 활발합니다. 등급이 낮고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7개의 리그와 대회는 전체 축구 데이터 소비량의 **7.5%**를 차지했습니다.

각 리그와 대회의 세부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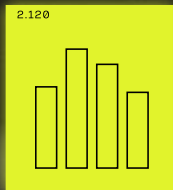
테니스 베팅 현황을 구성 한 순위 상승

2분기에는 French Open 및 Wimbledon의 예선과 French Open 본선을 포함해 상위 대회가 가득했습니다. 인기도 측면에서는 French Open과 Wimbledon이 우세했지만, WTA 대회
의 상승과 분기별 상위 10위에 중위 및 하위 대회 세 개가 새로
진입한 것도 지켜볼 만한 흥미로운 동향입니다.

리그 | **전년 대비 순위 변화** (경기당 평균 주문량)

WTA Wimbledon 여성 단식	+1 ↑
WTA French Open 여성 단식	+2 ↑
WTA Bad Homburg 여성 단식	+8 ↑
WTA Rome 여성 단식	+2 ↑
ATP French Open 남성 단식	-5 ↓
ATP Wimbledon 남성 단식	-5 ↓
WTA Eastbourne 여성 단식	신규
ATP Challenger Lima Peru 남성 복식	신규
ATP Tour Eastbourne 남성 단식	= →
WTA Hertogenbosch 여성 단식	신규





WTA가 베테 사이에서 인기를 얻은 건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2분기에 WTA는 ATP를 크게 상회하면서 가장 많이 요청된 리그 순위표 **상위 5개 중 4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와 동시에 전체 소비량에서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하기도 했죠.

WTA

.....> **18%**
전년 대비 성장률

가장 바쁜 연간 일정표 중 하나가 된 것을 반영하기라도 하듯 중위 프로 대회도 계속해서 테니스의 기조를 확립했습니다.

15개 중 6개

2분기에 가장 인기 있는 대회 6개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토너먼트인 WTA와 ATP 250 및 하위 경기였습니다.

5만 건 이상

투어가 계속 높은 성과를 냄에 따라 5만 건 이상의 신규 ITF 경기가 전년 대비 데 이터에 추가되었습니다.

프로 수준을 넘어 성장을 이룬 경기로 이동하면 전체 소비량에서 다음 두 대회가 돋보였습니다. 이는 스포츠북에서 테니스 업계가 가지는 가치를 시사합니다.

PTT
PREMIER TENNIS
T • U • R

.....> **38%**
2025년 1분기 대비 성장률

.....> **507%**
전년 대비 성장률

gtr
cup

.....> **85%**
2025년 1분기 대비 성장률

NBA 강세, 신기원을 연 유럽, 독립 리그 급등

농구는 **42%**에 달하는 현저한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여 성장을 이룬 2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NBA의 뒤를 잇는 선두 리그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메이저 유럽 대회가 현재까지 가장 높은 순위에 도달했습니다.



리그 | 전년 대비 순위 변화 (경기당 평균 주문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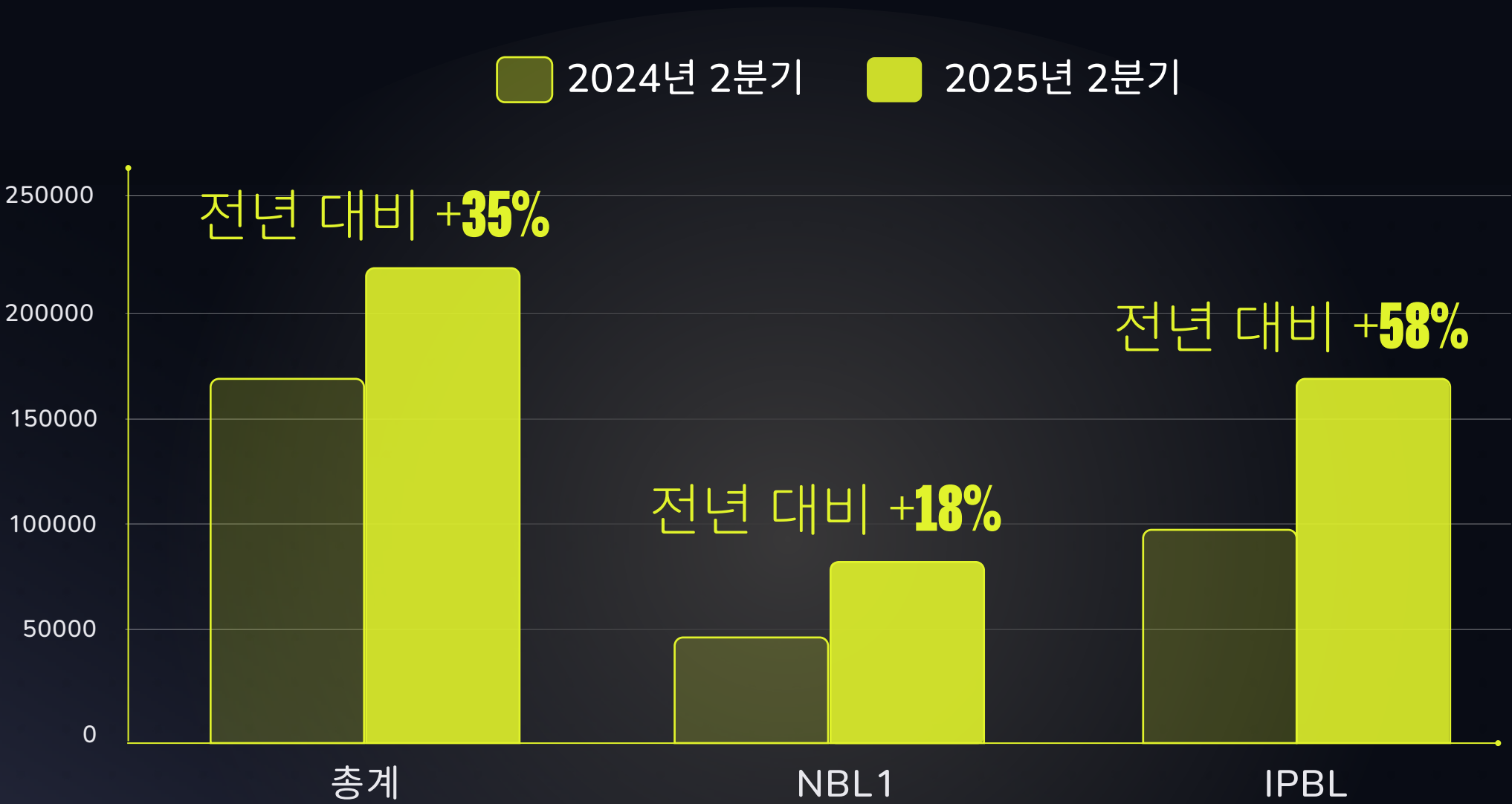
NBA	= →
한국 프로 농구	= →
WNBA	= →
Euroleague	+1 ↑
CBA	-1 ↓
EuroCup	+1 ↑
FIBA Champions League	신규
EuroBasket Women	-3 ↓
B.League – B1	= →
FIBA Europe Cup	-1 ↓



아주 치열하게 전개된 플레이오프 덕분에 NBA는 스포츠북 업체들 사이에서 전년 대비 인기가 상승했습니다. 또한, 최초로 유럽 밖에서 4강전을 개최하며 스릴 넘치는 시즌을 마무리한 EuroLeague 역시 인기도가 함께 상승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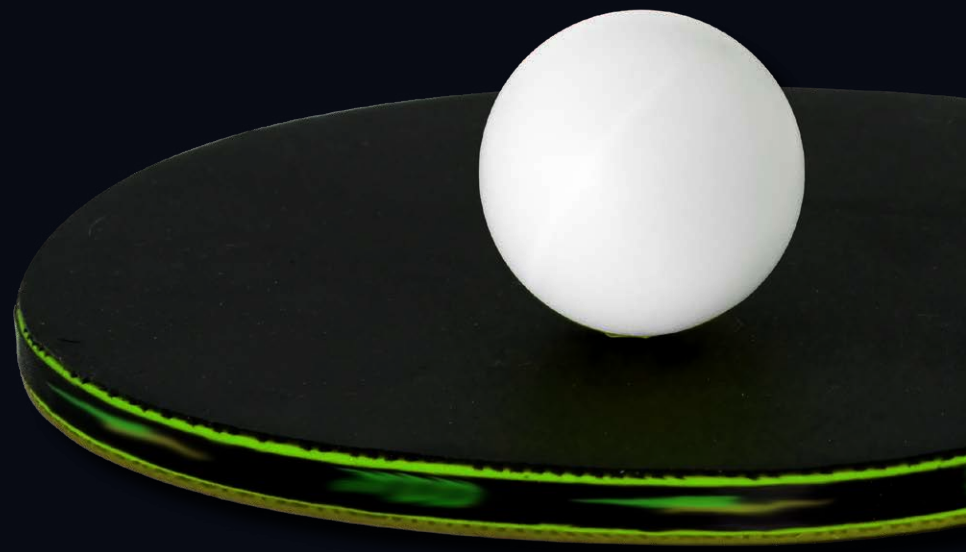


세미 프로부터 프로 수준에 이르는 독립 농구 리그(NBL1 및 IPBL)는 20만 건 이상 주문되면서 가공되지 않은 소비량 순위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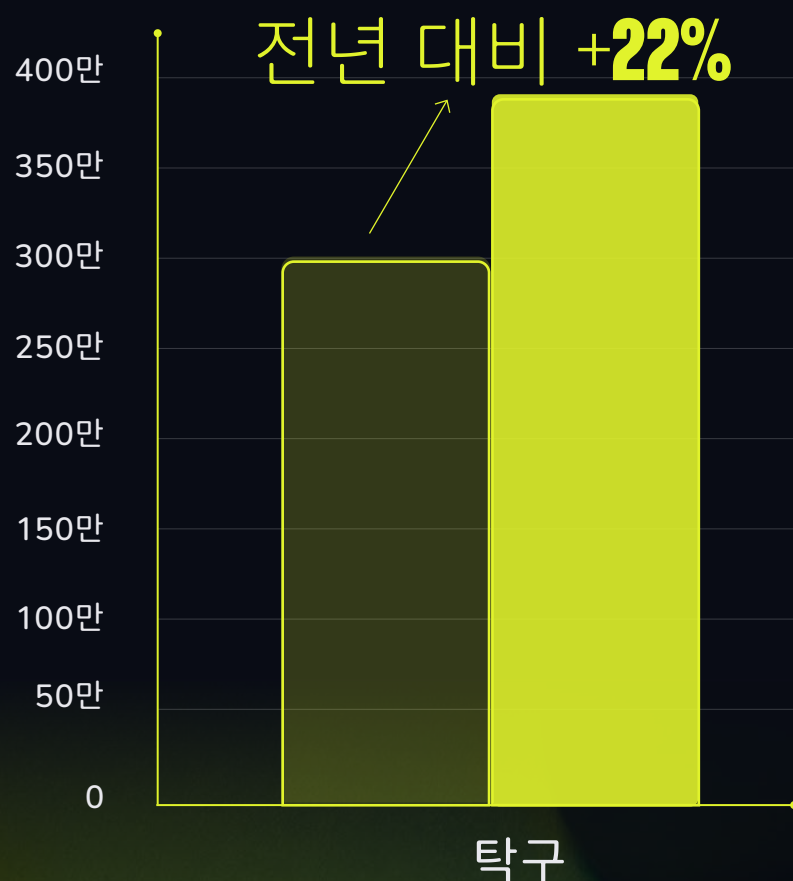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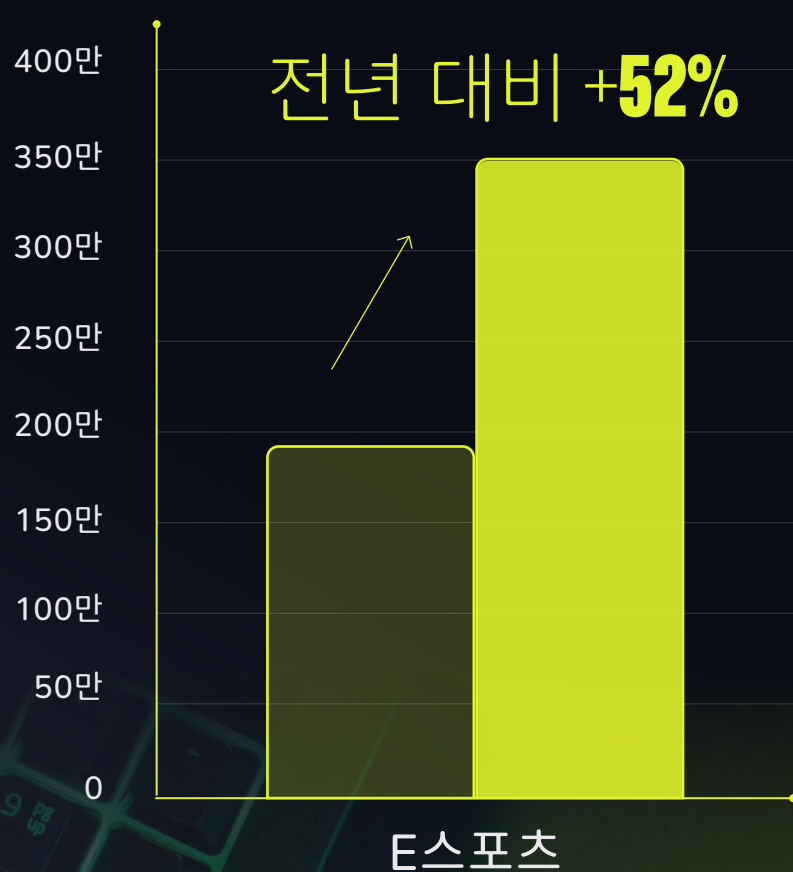
E스포츠와 탁구: 가공되지 않은 소비량 이 중요한 분야

1,800개 이상의 대회로 일정표가 연중 뱅뱅한 e스포츠와 탁구는 스포츠북에 적합한 참된 자산입니다. 2분기에 포함 **45만 건** 이상의 경기를 제공하고 **860만 건**이 소비되는 두 스포츠는 지속적인 액션의 흐름과 빠른 회전율을 보장합니다.



두 스포츠의 상위 리그 10개가 낸 성과

2024년 2분기 2025년 2분기



업계를 구성한 주요 데이터 동향이 궁금하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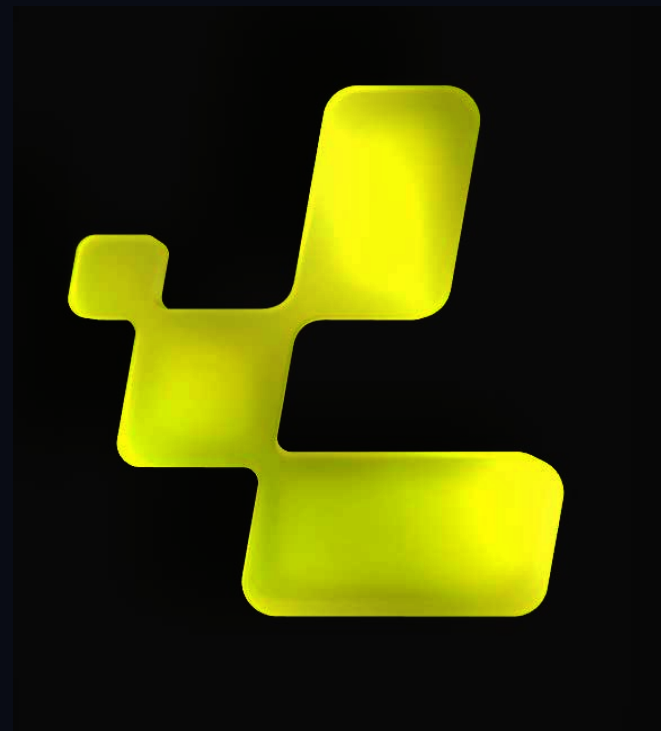
LSPORTS는 여러분이 운영하는 스포츠북의 고유한 요구에 맞춘 무료 상담과 더불어 당사의 광범위한 데이터 세트에서 도출된 추가적인 인사이트도 함께 제공합니다.

대화하기

LSPORTS 소개

LSPORTS는 세계 최고의 스포츠 데이터 제공업체로, 독보적인 정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실시간 데이터 제공 분야에서 업계 표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신 기술과 맞춤형 솔루션을 바탕으로, 스포츠북이 더 스마트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며, 수익을 극대화하고 사용자 참여도를 높입니다.

100종 이상의 스포츠를 아우르는 업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서비스 제공 범위를 통해 저희는 개발 단계에 관계 없이 모든 북메이커가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모든 베팅 분야와 인구 통계군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장에서 가장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100+
스포츠 종류

23
E스포츠 종류

15,000+
리그 수

2,500
시장 수

300만
경기 수

^{거의}
제로
대기 시간